

뻗뻗하게 하지 못하는 욕심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만족이 낫습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29)]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가정 문지기, 성전 문지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비느하스와 같이
동서남북 사방의 성전 문을 계속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9:20, 23-24,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이단들이나 죄악 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지기들이 되어 합니다.

갈 길이 너무 먼데 벌써 마음과 육신이 지쳐 있을 때 ...

갈 길이 너무 먼데 벌써 마음과 육신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므로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참고: 열왕기상 19:7-8, 현대인의 성경).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참고: 역대상 23:13, 현대인의 성경).

거짓 목사들과 참된 목사님?

아무리 400명의 거짓 목사들이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므로
그 교인들이 그 설교를 ‘좋은 설교’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참된 목사님은 아무리 그 교인들이 자기의 설교가 ‘나쁜 설교’라고 말할지라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설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22:14; 디모데후서 4:3, 현대인의 성경).

거짓 목사들과 참된 목사님의 차이 ...

거짓 목사들과 참된 목사님의 차이는
거짓 목사들은 거짓말하는 영의 꾀를 받아 거짓 복음과 거짓 설교를 전하지만
참된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과 말씀을 설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22:22, 24, 현대인의 성경).

**거짓 증언을 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입니다.**

악한 왕후 이세벨은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로 하여금
나봇을 주민들 앞에서 높은 곳에 앉히게 한 후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열왕기상 21:8-10,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실 것입니다(이사야 29:21, 현대인의 성경).

거짓된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는
주님의 참된 종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짓된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8:31-32, 현대인의 성경).

거짓말을 믿는 교인들

참된 목사가님이 아무리 진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짓의 영의 꾀를 받아 거짓말을 믿는 교인들은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고: 열왕기상 22:16, 21-22, 현대인의 성경).

거짓말하는 영의 꾀에 넘어가 거짓 설교에 중독이 된 교인들은 ...

거짓말하는 영의 꾀에 넘어가 거짓 설교에 중독이 된 교인들은
성령충만한 참된 목사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참고: 열왕기상 22:28,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8:7).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비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17:13, 현대인의 성경).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그 수벰 여자”는 “기근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2)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3)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그 수벰 여자”의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4) “바로 이때” “그 아이의 어머니”인 “그 수벰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 달라고 왕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5) “그러자 게하시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 살려 낸 바로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하고 외쳤”습니다.
(6) “그래서 왕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 관리 한 사람을 불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떠나고 없는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계산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열왕기하 8: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수벰 여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왕에게 호소하러 갔었을 바로 그 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벰 여자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을 왕에게 말해줬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룻이란 이방 여인도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헬에서 막 도착하였고 또한 그는 일꾼들 중에 룻을 주목했습니다(룻기 2:3-5, 현대인의 성경).

이 모든 일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섬세하게 역사(work)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섬세한 역사(work)와 인도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주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사무엘하 22:28, 현대인의 성경).

과연 나의 세 자녀들은 ...

과연 나의 세 자녀들은 솔로몬 왕처럼
주님께서 아버지인 나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있을까?
그들은 이 아버지가 다윗왕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한결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참고: 열왕기상 3:6, 현대인의 성경)

과연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구하기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자녀)을 위해
내가 어떻게 그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지혜를 구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3:9-11, 현대인의 성경).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인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화살”을 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2:17,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3).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죽여라.

내가 이세벨에게 내 예언자들과 종들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다. ...”

(열왕기하 9:6-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 데도 불구하고(사무엘상 24:6)

그리하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 앞에서 항상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참고: 열왕기상 10:8,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1) 벨엘로 가라, (2) 여리고로 가라, (3) 요단강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제발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고 세 번 말했을 때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당신이 살아 계시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하고 세 번 대답했습니다

(열왕기하 2: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룯이란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룯기 1:7, 현대인의 성경) 그녀에게 “애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고 말했을 때(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16-1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마태복음 26:56, 현대인의 성경).

그림자와 같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사는 날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고: 역대상 29:15, 현대인의 성경).

"기근"을 통해 우리를 이주케 하시는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벰 여자에게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소”
(열왕기하 8:1,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주케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녀와 후손들을
심한 “기근”(창세기 43:1)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케 하셨습니다(46:7, 27).
또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들므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룻기 1:1, 현대인의 성경).
탕자의 비유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 버린 둘째 아들이 살고 있었던
그 먼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시므로
그 둘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11-20).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여러 종류의 “기근”이나 “흉년”을 통해 궁핍케 하시므로
우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을 이주케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주케 하실 때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근”(궁핍케 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주케 하시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로마서 12:2)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십시오
(참고: 열왕기상 8:66, 현대인의 성경).

나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

과연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고: 열왕기하 10:16)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강한 자들인 나의 강한 대적과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참고: 사무엘하 22:18, 현대인의 성경).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참고: 사무엘하 22:51, 현대인의 성경).

나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두움을 밝혀 주십니다

(사무엘하 22:29, 현대인의 성경).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 역대상 22:13, 현대인의 성경).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 역대상 22:19, 현대인의 성경).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십니다
(참고: 사무엘하 22:19-20, 현대인의 성경).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했을 때 ...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크게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참고: 역대상 21:8, 현대인의 성경).

내가 죽기 전에 세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기초 작업?

나는 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그들을 위하여 죽기 전에 무슨 기초 작업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참고: 역대상 22:5, 현대인의 성경).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확실한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열왕기하 20:9-10, 현대인의 성경).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스라엘 아합 왕은 자기가 살고 있던 궁전 부근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열왕기상 21:1-2, 현대인의 성경).

다윗 왕은 왕궁 옥상에서 이웃 집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를 탐냈습니다(사무엘하 11:2-4, 현대인의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있는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생각납니다: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나귀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현대인의 성경).

또한 골로새서 3장5절 하반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7: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2,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 결과 그 여자들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녀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 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받치지 못했습니다

(2-4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과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서 거리를 두고 심지어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있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내 종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 죄악 된 세상의 불신자들의 죄악 된 행실을 본받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내 종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계명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가치한” 세상 것들을 우상화하여 섬겨 “아무 쓸모 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악한 풍습”을 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13-15, 현대인의 성경).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참고: 열왕기상 19:9, 13).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10,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이 죽었을 때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나뭇의 발에 던지게 했습니다(9:26).
그리고 그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여호와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36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10:1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저는 예후가 “... 여호와께서는 ...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을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도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 또한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여 간음의 죄를 범했던 다윗왕은(사무엘하 11:4)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12:13)고 고백한 후

나이가 많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을 때

그의 신하들이 정말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으로 하여금 다윗왕을 시종을 들게 하고 섬기게 하였으나 다윗왕은 그 여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열왕기상 1:1-4, 현대인의 성경).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5장 18-2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이야, 네가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에게 정을 주어야 하며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 보시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돈 감옥에서의 포로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돈)을 섬기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우리는 재물(돈)의 욕심이 사로잡혀 재물(돈) 감옥에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9:1, 현대인의 성경).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10:24, 현대인의 성경).

뿔뿔하게 하지 못하는 욕심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만족이 낫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했지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 오려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내 주인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두 예언자의 생도가 왔다고
그들에게 줄 은 34킬로그램과 옷 두 벌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은 68킬로그램과 옷 두 벌과 함께
자기의 두 사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의 집 앞에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물건을 받아 놓고 두 사환을 돌려보낸 다음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열왕기하 5:16, 20-2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감추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아간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 7:1).
아간이나 게하시를 생각할 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욕심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한 숨기며 감추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뿔뿔하게 하지 못하는 욕심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만족이 낫습니다.

마치 그릇을 깨끗이 씻어 옆듯이 ...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징계는 마치 그릇을 깨끗이 씻어 옆듯이
우리 마음 속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쓸어 없애 버릴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하 21:13,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 7:20-24; 히브리서 12:6).

만일 가정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미련하면 ...?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함도 르호보암처럼
미련한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므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로보함이 그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27-3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만일 가정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미련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예를 들어, 돈이나 재물)을 섬기므로
하나님께 범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행이 옳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불행히 닥칠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하 7:9; 고린도전서 9:16,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3:10-13).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화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최악 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5:25-26; 로마서 1:24, 26, 28,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

어떻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9,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자기의 많은 이방 아내들에게 가 있었고
또한 그녀들의 더러운 신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이미 이 최악 된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식구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18:18, 현대인의 성경).

만일 주님께서 내 아들도 목사가 되게 하신다면 ...

만일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이어 나를 주님의 종인 목사가 되게 하셨듯이
내 아들 Dillon(뜻: 진실하고 신실하다)[한국어 이름은 “승관”(뜻: 승리의 면류관)]로 하여금
나를 이어 목사가 되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시사
그로 하여금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3:7, 현대인의 성경).

말씀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네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는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9-10, 현대인의 성경).
저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명의 떡(요한복음 6:48)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시편 1:2)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6:1-15)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주님께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어드리면서 ...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어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8:25, 현대인의 성경).

몇 칠이나마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방을 공급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던 수벰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그가 수벰에 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를 위하여 옥상에 작은 방 하나까지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들여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벰에 올 때마다 쉬어 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4:8-10).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 저기 다니실 때
주님께서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수벰 여자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서
몇 칠이나마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방을 공급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 용감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19:13, 현대인의 성경).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22:13, 현대인의 성경).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주님의 종이 돼야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

“그는 여호와와 말씀 선포하는 진실한 예언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3:12, 현대인의 성경).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주님의 종이 돼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아니면 ‘나쁜 설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아니면 ‘나쁜 설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22:8, 13-14, 18, 현대인의 성경).

무엇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내 아들 Dillon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
앞으로 그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막중할 텐데
나는 그의 아버지로서 그를 위해 무엇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참고: 역대상 29:1-2, 현대인의 성경)

무자비한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

무자비한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는 게 낫습니다(참고: 사무엘하 24:14, 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대통령은 ...

미련한 대통령은 미련한 보좌관들의 미련한 말을 듣고
시민들에게 포악한 말로 그 미련한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12:13, 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우리를 높일 때(높은 곳에 앉힐 때)
우리는 좋아하기보다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참고: 열왕기상 21:12, 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오히려 낮아짐을 받는 게 낫습니다.

미련한 아내?

남편 아합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도와야 할 아내 이세벨은
오히려 남편의 탐욕을 만족케 하고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갖도록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1:7, 15, 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아내였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합니다(잠언 14:1, 현대인의 성경).

미련한 지도자, 미련한 남편?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의 젊은 보좌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을 몰랐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열왕기상 12:10-1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미련한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에게 짐을 더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혹(harsh)하게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미련한 가장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아내를 괴롭게(harsh) 합니다(골로새서 3:19).
그는 그의 아내의 말에 부드럽게 대답하기보다 과격한 말(a harsh word)로 그녀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
(잠언 15:1, 현대인의 성경).

민족주의적인 열성 때문에 ...

민족주의적인 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어기므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21:1-2, 현대인의 성경).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열왕기상 18:28, 현대인의 성경).
이와 같이 의식에 따라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무척 사랑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대통령으로 삼으시사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10:9, 현대인의 성경).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노쇠한 다윗왕은 왕이 될 야심을 품은 자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과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그녀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나아가 밧세바의 아들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한 것과 이미 아도니아가 새 왕이 되었다는 것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다윗왕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게 했고 자기도 다윗왕에게 나아가 비슷한 내용의 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왕은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여 그녀에게

“나는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나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신 살아 계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했습니다(열왕기상 1:5-4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죽어도 나는 네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하나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아도니아의 음모가 있었지만 그 음모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도니아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사무엘하 11:27)

그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12:1-12)를 다시금 사용하시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열왕기상 1:43).

이와같이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심에 있어서

비록 난관이 있다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열왕기상 8:15, 20, 24, 현대인의 성경).

범죄하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좇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7-8,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므로 우상 숭배를 하며
또한 이 죄악 된 세상의 악한 풍습을 좇아 삶으로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주시사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유다서 1:11, 현대인의 성경).

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참고: 역대상 29:18, 현대인의 성경).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기름 부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엘리아 선지자처럼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머지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19:10-12, 현대인의 성경).

비겁한 침묵입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오?
만일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주님을 섬기고, 만일 재물(돈)이 하나님이면 돈을 섬기시오.’
이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18:21,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6:24).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보고 ...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아들/딸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길 기원합니다(참고: 열왕기상 5:7, 현대인의 성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탐욕?

탐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나봇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어서라도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21:13-15, 현대인의 성경).

사탄의 충동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참고: 역대상 21:1-3, 현대인의 성경).

선물 자체는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받아 달라고 억지로 권하여도
엘리사 선지자는 거절했습니다(열왕기하 5:1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사람(하나님의 종)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겸손히 받되 선물 자체는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7:24).

비록 사마리아 왕은 그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한 신하가 그 왕에게 어차피 사마리아 성 안에 남아 있다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처지와 다른 것이 없”었기에 “사람을 보내 시리아군의 진지를 살펴보고 오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정찰병들을 보내 시리아군의 동태를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정찰병들은 시리아군들이 “급히 도망하면서 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자”(열왕기하 7:13-15, 현대인의 성경) 그 때서야 왕은 그 문둥병자들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왕은 그 문둥병자들이 시리아군의 진지에서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반면에 자기의 정찰병들이 그 진지에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왕에게 전했는데 사마리아 왕은 그 문둥병자들이 전한 사실은 믿지 않고 자기의 정찰병들이 전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그 왕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7:24).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야고보서 2:4, 새 번역)

성경적인 찬양 가사

우리는 노래로(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 노래(찬양) 가사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25:2, 3, 현대인의 성경).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22:11,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은 진실을 통해 우리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사랑을 하게 만듬으로 형제의 사랑을 발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왕의 오해는 충분히 시리아(아람) 왕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그 왕에게 전갈을 보내므로 결국 이스라엘 왕의 오해가 시리아 왕과 전쟁으로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시리아 왕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깨끗이 치유를 받으므로
(열왕기하 5:7-8, 14, 현대인의 성경)
그 두 왕의 관계는 오해도 풀리고 전보다 발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짓의 아버지 사탄의 거짓된 영은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관계에 이런 저런 오해를 하게 만들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실을 통해 우리의 관계에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사랑을 하게 만듬으로
형제의 사랑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에 ...

성전 건축할 때에 “회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2:15, 현대인의 성경).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돈과 명예 등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요?
(참고: 열왕기상 9:7, 현대인의 성경)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과 같은 기도 응답의 사인(sign)이 있다할지라도 ...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한 끝에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과 같은 기도 응답의 사인(sign)이 있다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18:43-44, 현대인의 성경).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8:58, 현대인의 성경).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과 우리를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12:18, 현대인의 성경).

승리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18:6, 현대인의 성경).

시므이의 다윗 왕 저주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을 때

사울이 집안 사람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살인자여!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사무엘하 16:5-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시므이가 다윗왕을 저주한대로 다윗은 “살인자여 악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은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 성경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1:27).

(2) 그러나 시므이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라고 저주한 내용이나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라는 내용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은

다윗은 사울과의 그 가족을 죽이지 않았고 또한 사울의 왕위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그 가족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었고(사무엘상31:1-6)

또한 사울의 왕위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기에(사무엘하 7:15) 그가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2)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왕에게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고 저주했는데

실제로 다윗왕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인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그가 망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시므이의 저주는 합당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므이의 합당치 않은 저주 내용을 묵상할 때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신명기 21:23; 갈라디아서 3:13)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베드로전서 3:18, 현대인의 성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살아드리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드리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22:12, 현대인의 성경).

신호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겠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14:15, 현대인의 성경).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미련한 남편?

하나님께서서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않는 미련한 남편을 통해서도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참고: 열왕기상 12:15,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2:2).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our nothingness)(시편 8:4).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God's everything).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교만한 착각을 하기 보다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험이 우리를 두른다 할지라도 ...

아무리 죽음의 위험이 우리를 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서는 성소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22:6-7, 현대인의 성경).

아합과 같은 대통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만 전력을 쏟는 아합과 같은 대통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참고: 열왕기상 21:20-21, 현대인의 성경).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부부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그의 아내는 그를 충동하여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부부는 하나님께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21:21, 25, 현대인의 성경).

야심과 음모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될 “야심”을 품고 있었던
다윗의 아들이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인 아도니야는
“음모”를 꾸며 결국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음모에 가담하게 했습니다(열왕기상 1:5-8, 현대인의 성경).
복음 전파 사역에도 주님의 종을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빌립보서 1:17,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주님의 종을 해할 “음모”를 꾸미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21:11, 현대인의 성경).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9:4-5, 현대인의 성경).

약속을 이행하소서

주님, 나에게 하신 요한복음 6장 1-15절의 약속과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하신 마태복음 16장 28절의 약속을 이행하소서
(참고: 역대하 1:9, 현대인의 성경).

양심의 가책을 받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을 때
(역대상 21:1, 현대인의 성경)
다윗은 인구 조사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께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였습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하 24:10,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긴 이유는 ...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사

반드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생전에 그리 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빼앗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9-13, 현대인의 성경).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나와 맺으셨으니

어찌 그분이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참고: 사무엘하 23:5, 현대인의 성경)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8:23, 현대인의 성경).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을
오히려 주님께서서는 하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으니
제가 무슨 염치로 주님께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참고: 사무엘하 18:28, 현대인의 성경; 요한계시록 19:9)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새가 가서 당장 다윗왕을 저주한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목을 베고 싶어했을 때

다윗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쩌서 이렇게 하느냐? 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없이 길을 갔으나

시므이는 비탈길로 계속 따라오면서 여전히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습니다”

(사무엘하 16:10-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시므이가 비탈길로 계속 다윗왕을 따라오면서

여전히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없이” 길을 갔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저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마태복음 3:17,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이사야53:10)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복음 27:46)라고 크게 소리지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3,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의 대대 후손들 가운데서 주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길 위해선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의 대대 후손들 가운데서
주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길 위해선
우리들과 우리 자녀 및 후손들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2:4,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개처럼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

“개처럼 보잘것없는” 시리아(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인 하사엘은
벤하닷 왕을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8:13,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라고 말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24:14,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말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하 9:8).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개처럼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모
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4; 요한일서 3:1, 현대인의 성경).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역대상 21:24, 현대인의 성경).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고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의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온 후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이 잤다 대는 그 모든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 부었을 때
순식간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이제 남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자
흐르던 기름이 곧 멈추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4:1-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작은 기름 한 병”으로도 남자만 5,000명이시는
오병이어(two fish and five barley loaves)의 기적(miracle)(요한복음 6:1-15)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어려움과 위기를 접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나 등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고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사무엘하 22:32-33).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22:2, 현대인의 성경).

오해와 잘못된 확신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는데(열왕기하 3:18)

그 방법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해가 물에 비치고 있었던 것이

마치 피처럼 보이므로 그들은 “이것이 피가 아니냐!

저 왕들(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자, 가서 그들의 진지를 약탈하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군이 달려 나와 그들을 치자

모압 군은 도주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추격하며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22-24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흥미로웠던 점은

분명히 해가 물에 비치고 있었을 뿐인데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피처럼 보이므로

그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 모압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진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때 흥미롭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신기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해야 합니다
(역대상 16:8-9, 현대인의 성경).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28:9, 현대인의 성경).

올바른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기원합니다(참고: 역대하 1:11, 현대인의 성경).

완전히 없애 버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상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 버려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0:28, 현대인의 성경).

왜 그녀는 죽은 자기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있는 침상에 눕혀 놓았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그 수빔 여자는 그 이듬해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이구 머리아! 아이구 머리아!”하고 소리를 질러 댔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으로 안고 가서 침상 위에 눕힌 다음 방문을 닫고 나와서 “급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멜산까지 간 것입니다(열왕기하 4:17-25, 현대인의 성경).

왜 그 수빔 여자는 그리 행했을까요?

왜 그녀는 죽은 자기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있는 침상에 눕혀 놓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네 명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성경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5:17-26,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친구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20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 곳까지 오셨습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상 17:18, 현대인의 성경).

용광로와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직접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8:51, 현대인의 성경).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오늘날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참고: 열왕기상 8:61, 현대인의 성경).

우리 안에 무리한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야심)이 있다면 ...

“야심을 품고”(열왕기상 1:5, 현대인의 성경)

“스스로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5절)는

자기의 이복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2:15,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한 후

그녀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16-17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 왕이 살아 생전에

나이가 많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을 때

그의 신하들이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찾은 여자로서

다윗 왕의 시중을 들게 한 여자였습니다(1:1-4,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시중들던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길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통간)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창세기 35:22).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을 때 맏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너는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하여 네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49:4, 현대인의 성경).

르우벤처럼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길 원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심을 품고 스스로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했던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고자가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젠 아버지 다윗왕의 여인까지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리한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야심)이 있다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일을 무모하게 시도하므로 결국 그 야심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끝까지 섬길 수 있길 기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4-6, 현대인의 성경).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끝까지 섬길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교훈을 거울삼아 살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3:3, 현대인의 성경).

우리 자신의 필요성에 대한 갈급함과 긴급함이 있다면 ...

나아만 장군은 자기 아내의 하녀의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가서 그 소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시리아(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에게 “갔다 오너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편지도 한 장 써 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아무썸록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째서 이 사람이 문둥병자를 고치라고 나에게 보냈는가!

시리아 왕이 나에게 시빗거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5:4-7, 현대인의 성경).

저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내의 하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물론 나아만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그 소녀의 말까지도 듣게 하시사

결국에 가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자기의 문둥병도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4-15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필요성에 대한 갈급함과 긴급함이 있다면 가난한 심령과 겸손함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리아(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묵상할 때

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해한 이유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 속에서 시리아(아람) 왕의 편지를 읽었으니

충분히 그는 시리아 왕이 자기에게 시빗거리를 찾는 줄로 오해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참고: 잠언 3:5).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때 ...

자기 아내의 하녀인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던 시리아(아람)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그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격분하여 돌아가려고 했다가

자기 종들(부하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강물에 자기 몸을 일곱 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3-4, 12-14, 현대인의 성경).

나아만은 교만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기대한대로 직접 나와서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기 병을 고쳐 줄 것으로 생각했다가

엘리사가 그저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스라엘 소녀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부하들)의 말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겸손함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 받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 대로 순종하므로

자기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복”(14절)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참고: 로마서 12:2).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대적의 군대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 열왕기하 6:16, 창세기 32:2,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몹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많은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 열왕기하 9:22)

오히려 이 소동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방탕과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몹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베드로후서 2:7-8,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실한 나봇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시무룩한 채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3-4,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탐심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얻지 못하므로 기분 나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15, 공동번역).

우리는 이 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우상인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고: 열왕기하 17:40-4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험(test)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고: 열왕기상 3:16-28).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와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7:36-39,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리아(아람) 군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시리아군이 총사령관 나아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열왕기하 5:1,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훌륭한 군사가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아만처럼 이런 저런 질병이나 자신만의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

우리도 요시아 왕처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23:25,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고(restore) 또한 부흥케(revive)하시는 주님

극심한 두려움과 큰 낙심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일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간구한 후 심신(마음과 육신)이 지쳐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시고(restore) 또한 부흥케(revive)하십니다

(참고: 열왕기상 19:4-7, 현대인의 성경; 시편 71:20; 80:18; 이사야 57:15; 예레미야 30:17).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4:26,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히브리서 13:6, 개역한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참고: 열왕기상 9:9,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22:31, 현대인의 성경).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죽은 아들로 인해 갈멜산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그 수벰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열왕기하 4:30).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길 그리고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룯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룯기 1:16-17, 현대인의 성경).

결국 나오미는 룯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18-19절, 현대인의 성경).

엘리사 선지자도 “하는 수 없이 그녀(수벰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열왕기하 4:30, 현대인의 성경).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20).

우리의 교만함은 헛된 기대감을 유발합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기 병을 고쳐 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격분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도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열왕기하 5:10-12,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면(잠언 3:5)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사람”(8절)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는 우리의 교만함은 헛된 기대감을 유발합니다.

우리의 대적?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일으켜 우리의 대적이 되게 하시사 우리를 평생에 미워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열왕기상 11:14, 25, 현대인의 성경).

유능한 인재들

우리 온 가정 친척들 가운데서 아주 재능이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25:6, 현대인의 성경).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하시사 우리가 접한 두려운 상황을 보지 않게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 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한 반면에
시리안(아람) 군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17-1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영안) 또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히브리서 12:2, 현대인의 성경)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하시사
우리가 접한 두려운 상황을 보지 않게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종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8:30, 현대인의 성경).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 에야 차라리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앉아 있었던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문둥병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들
그들은 그 성안에서 굶어 죽을 것이었고
그냥 그 성문 입구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 에야 차라리 시리아군에게 가서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는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죽기밖에 더하겠느냐”라는 마음 자세였지만
시리아 군들은 자신들의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고”
자신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에 그대로 버려 둔 채 이미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3-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5).

이런 때에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화를 주셔서
대적(다툼)도 없고 재난(어려움)을 당할 위험도 없을 때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5:4,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자녀에게 유연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이렇게 유연했습니다:

(1) ‘너는 남자답게 굳세게 살라,’

(2) ‘너는 네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법과 규정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실천하여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연한 이유는

‘그러면 아들 솔로몬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3, 현대인의 성경).

우리 부모님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위해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명령,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범을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살다가 우리의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유연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녀의 도움을 받은 나아만 장군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리아(아람) 군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치유함)에 있어서

자기의 아내를 시중드는 하녀인 이스라엘 소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소녀는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5:2-3,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의 고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알게 하시든지

또는 보내주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역행하는 행동?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떼서 나무 위에 올려 놓고 기도해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한 엘리야 선지자는
물 네 주전자를 가져 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세 번이나 물을 갖다 붓게 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18:24, 33-35,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나무나 송아지로 하여금 불타게 하는 데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뜻)에 순종하는 행동은
사람들 보기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역행하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관한 짧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모든 대적에게서 지켜주시사
평화와 안정을 주시므로 그들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22: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22:1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그
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드리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22:12,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22:13, 현대인의 성경).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 역대상 22:13, 현대인의 성경).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 역대상 22:19, 현대인의 성경).

오늘 이 아침에 자녀들에 관한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오후에 만났던 어느 부부와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화는 주로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어제 대화를 뒤돌아보면서
자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려고 합니다:

1. 나는 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하나님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기도에 많이 공감합니다(사사기 13:8, 12, 현대인의 성경).
2. 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3. 나는 내 자신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다만 너희가 그 실수나 실패를 통해 배울 수만 있다면'(It's okay for you to make mistakes or even to fail as long as you learn from it).
4. 나는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워주세요'(Lord, may You raise beloved Dillon, Yeri and Karis as Christ-centered visionary leaders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5.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딜런) '하나님,

딜런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사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리) '하나님, 예리에게 에브라임의 역사(work)를 이루시사 그녀로 하여금 두배로 풍성(twice fruitful)하게 하옵소서', (예은) '하나님, 예은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하시사 그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6.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세 자녀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기에 친히 그들을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7. 나는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작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내 자녀들이 나를 생각(추모)할 때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참고: 히브리서 11:4).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

지도자가 따르는 자에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킬 때
따르는 자는 “하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24:4, 현대인의 성경).

지도자는 따르는 자로 하여금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전투할 태세를 갖춘 정예군들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과

모든 무기를 갖추고(하나님의 전심 감주를 입고)

주님에게 철저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잘 훈련되고 전투할 태세를 갖춘 정예군들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12:32-36, 현대인의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11:9, 현대인의 성경).

조심히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조심히 잘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28:10, 현대인의 성경).

좋은 사람, 좋은 소식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참고: 사무엘하 18:27).

좋은(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설 때에 ...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 내용 중에는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1) 요압, (2) 바실래, (3) 시므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세 사람들 중에

요압과 시므이는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루어

그들의 죄에 대한 벌(punishment)을 내릴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인 바실래는

그의 아들들에게 상급(reward)을 내리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식탁에 앉아 먹게 하라고 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5-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은 죽기 전까지 이 세 사람을 잊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세 사람들은 다윗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큰 영향도 두 명은 나쁜 영향을 끼쳤고 나머지 한 명은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세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요압과 시므이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호의를 베풀) 바실래에게는 그의 아들들에게 상급을 내려라.

우리는 바실래처럼 사람들에게 좋은(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천국으로 오라고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나이고 악을 행한 사람도 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도 나이고 악을 행한 사람도 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 벌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 안을 벌하십시오”라고 부르짖은 말씀(사무엘하 24:17,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저이고 악을 행한 사람도 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셨나요?

(고린도후서 5:21,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8:46,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하고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회개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47-50절,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누가복음 1:45, 현대인의 성경).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자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하고 예언한 말씀(열왕기하4:16,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8:10, 현대인의 성경).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그 수넴 여자의 반응은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다(열왕기하4:16),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 뒤 천막 입구에서” 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혼자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하고 중얼거렸습니다(창세기 18:10-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누가복음 1:41, 45,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참고: 열왕기상 3:5,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

저는 실제로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참고: 역대상 29:14,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열왕기상 8:39,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
(마태복음 15:18-20).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아가 자기 겹옷을 벗어 말아 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엘리아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는

말씀(열왕기하 2:8, 현대인의 성경; 참고: 14절)을 묵상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갔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14:16, 21-22, 현대인의 성경).

또한 여호수아 시대 때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독을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 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 버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는 말씀(여호수아3:14-17, 현대인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영어 복음 성가 “Way Maker”(“길을 만드시는 주”) 후렴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인터넷).

<https://youtu.be/VxRZDqbDoMk>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고: 열왕기하 10:31, 현대인의 성경)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29:17, 현대인의 성경).

죽어 마땅한 사람은 나인데 ...

지혜로운 솔로몬왕은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통하여
자기에게 수빔 여자 아비삭을 아내고 삼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아도니야를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려 칼로 쳐 죽인 후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왕이 보기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 계승시에 아도니야를 지지했으므로
그 또한 아도니야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솔로몬왕의 아버지 다윗이 생존해 있었을 때 여호와의 법궤를 맡았던 제사장이었고
또한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아비아달도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왕은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추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집안에 대해 실로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3-2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로서(로마서 5:10)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서는 도리어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고린도후서 5:21, 현대인의 성경)
영원한 생명이시요(요한일서 1:2, 현대인의 성경)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쳐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21, 현대인의 성경).

죽은 개 같은 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시므이가 다윗왕을 저주했을 때 아비새는 다윗 왕에게

“어째서 왕은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사무엘하 16:9,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1) 아비새는 다윗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가리켜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어째서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습니까?”

(사무엘상24:14,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세상까지 오셔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의 진지까지 갔었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26:8, 현대인의 성경).

이 아비새란 인물은 다윗에게 충성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원수를 “단번”에 해치우길 원했고

또한 다윗을 저주한 자도 “당장” 가서 목을 베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아비새는 자기가 보기에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단번”에 해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건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왕으로 택한 자를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9-11절, 현대인의 성경).

(4)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로마서5:10)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히브리서10:10; 참고: 로마서 6:10; 히브리서 7:27; 9:12, 26, 28;

베드로전서 3:18).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공포)은 ...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공포)은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게 만들며,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선배님)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열왕기상 19:3-4, 현대인의 성경).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바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 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8-9, 14-16, 현대인의 성경).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역대상 16:10, 현대인의 성경).

지금도 사실(The Fact)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Faith)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옳지 못한 소행을 회개하고 돌이켜
시리아군의 진지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문지기들에게
자신들이 시리아군의 진지에서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문지기들은 그 소식을 왕궁에 전했다지만 왕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은 시리아군들이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 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7:9-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감옥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때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대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로데를 보고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베드로)의 천사겠지”하고 말하면서
로데의 말을 믿지 않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2:11-15, 현대인의 성경).

네 명의 문둥병자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사마리아 왕이나
어린 여종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나 공통점은
그들은 전해 들은 사실(fact)을 믿지(faith)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The Fact)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Faith)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8,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17, 현대인의 성경).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돈이나 선물을 받을 때인가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종을 받을 때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열왕기하 5:26, 현대인의 성경).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돈이나 선물을 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때가 아닌가요?

지도자는 어떻게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기게 할 수 있을까요?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노인들의 조언인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여로보함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만일 왕이 이 백성을 따듯이 대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으로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면

그들이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역대하 10:8, 현대인의 성경)]라고 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열왕기상 12:3, 7, 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도자는 어떻게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기게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란 지도자는 (1)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다스리고, (2) 그들을 따듯이 대하며,

(3)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응하므로 그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가정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하고 있는지

이 말씀 원리에 제 자신을 반영해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겸손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따듯함보다 차가움이 있으면

그들의 요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양쪽 말을 다 듣고 쌍방 간에 공정히 판단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을 때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의 하인인 시바가

두 마리의 나귀에다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싱싱한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시바에게 “므비보셋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시바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6:1-3,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 시바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인 므비보셋을 배신하고 거짓말로 다윗 왕 앞에서 므비보셋을 비방한 것입니다.

절뚝발이인 므비보셋도 다윗 왕과 함께 가려고 그의 종 시바에게 나귀 안장을 지우라고 했지만

시바가 그를 배신했기에 므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가지 못한 것입니다(19:26-27,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왕은 지혜롭지 못하여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바에게 므비보셋에게 속한 것을 모두 시바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16:4, 현대인의 성경).

그러다가 다윗 왕은 나중에 므비보셋의 말도 들어본 후에

“내가 사울의 밭을 너(므비보셋)와 시바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19:29, 현대인의 성경).

지혜가 있는 자는 양쪽 말을 다 듣고 쌍방 간에 공정히 판단합니다

(신명기 1:13, 15, 16).

지혜로운 여자, 미련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고 미련한 여자는 스스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잠언 14장 1절, 현대인의 성경).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4:30, 34).

우리는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2:2, 현대인의 성경).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주님, 저에게 가정과 교회를 잘 이끌수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참고: 역대하 1:10, 현대인의 성경).

진실하게 섬기는 자

우리도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18:3, 현대인의 성경).

**질병이 치유를 받지 않을지라도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아 자신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14-15, 현대인의 성경).

나아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기의 문둥병만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치유를 받으므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이 치유를 받지 못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16:41, 현대인의 성경).

축복의 선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참고: 역대상 26:5, 현대인의 성경).

충분한 능력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25:8, 현대인의 성경).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17-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종종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도 각각 도박과 마약을 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모든 대적에게서 지켜주시사
평화와 안정을 주시므로 그들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22:9, 현대인의 성경).

“풍년”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수넴 여자”는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기근이 끝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하 8:2-3, 현대인의 성경).
나오미의 경우도 “흉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들마저 죽고 홀로 남게 된 “그로부터 얼마 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유다 백성)을 축복하여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룻1:1-7, 19,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저는 비록 “기근”이나 “흉년”으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케 만들었지만,
“풍년”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 종류의 “흉년”과 “풍년”을 들게 하시사
인생의 “흉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주케하시고,
인생의 “풍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압을 치려고 광야 길을 돌아 7일 동안 진군했던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은 자신들의 군사들과 가축들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열왕기하 3:9)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짐승이 마시게 될 것”과 “이런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17-18절, 현대인이 성경).

물이 없는 광야에 물을 가득 차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물이 가득 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창세기 48:3; 여호수아 22:22; 이사야 9:6; 고린도후서 6:18).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사 그 죄의 결과로 인생의 쓴 맛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사 전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평화롭게 지낼 때 또 다시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지 않나 생각합니다(참고: 열왕기하 12:2-6,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는 ...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는

내가 성경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성경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케 했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22:13-19, 현대인의 성경; 요엘 2:13).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 놓고 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9:14-15,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성도는 ...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고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22:22-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보는 습관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시리아)와 전쟁하기에 앞서
아합 왕에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물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6-7) 다시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에돔 왕과 함께 모압과 전쟁하기에 앞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하고 물었습니다(열왕기하 3:11).
이 사실을 목상할 때 적어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적군과 전쟁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보는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꾀를 받아
거짓 복음과 거짓 말씀을 거짓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 목사들과 거짓 교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22:21-2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참고: 열왕기하 6:2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굉장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열왕기상 4:2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는 ...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는 악한 나라의 침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역대상 17: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영토”(예를 들어, 재정)를 줄이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을 그대로 본받으므로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0:31-3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지 않고 오히려 그 계명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영토”(예를 들어, 재정)를 줄이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참고: 사무엘하 22:4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해 ...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힘으로 무장시키셔서

내 대적들을 내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참고: 사무엘하 22:35, 4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 열왕기상 9: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시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이사야 38:2-3, 5, 17).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5: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므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8:3, 5-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단추를 끼지 않으면 나머지 단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릴 신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1:7-8, 현대인의 성경).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자기 아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할 남편 솔로몬은
오히려 그녀들에게 이끌림을 받아 그녀들로 하여금 우상을 계속 섬기도록 신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제 생각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2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단추를 끼지 않으면 나머지 단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제안도 거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합 왕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인 나봇의 포도원을
고작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 포도원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나봇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만일 나봇이 원한다면 그 포도원 값을 후하게 매겨 돈으로 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여호와께서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열왕기상 21:1-6,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제안도 거절해야 한다면
하물며 어느 누구의 제안도 거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삼으시고 또한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함께하시사
제 앞에서 저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two fish and five bread miracle)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참고: 역대상 17:7-8,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28:2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그치는 방법 ...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그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사무엘하 24:18-25, 현대인의 성경).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참고: 열왕기상 8:56, 현대인의 성경).

한 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의 거짓된 미혹의 말에 한 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침묵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8:36, 현대인의 성경).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16:11, 현대인의 성경).

헌금 사용법?

헌금은 필요한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12:12, 14, 현대인의 성경).

혹시 지금 자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혹시 지금 자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세상의 풍습에 따라 재물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열왕기하 17:33; 마태복음 6:24, 현대인의 성경)

혹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는 여호와께 한 가지일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내 부축을 받아 들어가서 절을 하면

나도 함께 절을 하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

(열왕기하 5:18, 현대인의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명절 때 제사를 드릴 때

식구의 영혼 구원(전도)의 목적을 위해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로마서5:2)라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데살로니가전서 4:13-17; 고린도전서 15:51-52; 빌립보서 3:21)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rejoice and will continue to rejoice because Christ is preached)(빌립보서 1:18).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옥”(사도행전 16:24)에 가둔 바 된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2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시편 42:5, 11; 43:5).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12, 1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4-6,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71:8, 현대인의 성경).

회계할 필요조차도 없는 정직한 사람

교회의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용하므로
그 재정 사용 비용을 회계할 필요조차 없어야 합니다
(참고: 열왕기하 22:7, 현대인의 성경).

흉년?

범죄의 대가로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무엘하 21:1, 현대인의 성경).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참고: 역대상 28:8, 현대인의 성경).